



홍을표 이해조문학회 회장

### 특별기고 이해조문학회 회장 홍을표

## 이해조의 '자유종' 과 시민 대중

몽과 각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여기에는 신교육의 중요성과 남녀평등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고, 국사 교육, 우리말 교육 등 교육 사상을 피력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자유는 근대적인 개인의 각성이기도 하고 넓은 봉건적 골레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다. 남존여비 사상, 적서차별의 골레, 지역차별, 신분차별의 넓은 폐쇄로부터 자유이기도 하다. 허례허식의 유교적 제사 의식에서 종교와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유이기도 하다.

중국에 의존하는 중화사상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자유이고, 한문의 압도적 지배로부터 점차로 한글을 통한 보통 교육으로 나아가는 자유이기도 하다. 이해조는 이러한 자유로 각성된 국민들에 의해 일제의 침탈로부터 국가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쟁취라고 생각했다. (자유종)은 바로 이러한 애국 계몽적 문화 활동의 상징이다.

### 시민 대중과 자유종

포천시에서는 시 승격을 기념하는 사업으로서 시민 대중을 만든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이어서 시민 대중 건립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시 승격은 경축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 이래 최초로 군민(郡民)에서 시민(市民)으로 개화된 입장에 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시민 대중을 만든다면,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새로운 시의 모습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해조문학회도 이러한 자발적인 시민의 일부로서 포천이 낳은 선각자인 이해조의 업적과 뜻을 포천시민과 함께 기리고, 포천을 진정한 문화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시 승격을 기념하는 시민 대중 건립 사업에 이해조의 근대 정신을 결합시킬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래서 시민 대중의 이름을 이해조의 작품인 (자유종)으로 할 것을 아래의 근거로써 제안한다.

1. 이해조는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활동한 포천 출신의 선각자로서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으나 이제 시로 승격되어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함께 해야 할 이 시점에서 올바르게 평가하여 그 분의 시대 개혁 사상과 문화적 업적을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포천 시민에게 있다.

2. 시로 승격되는 것을 기념하여 시민 대중을 꼭 만들어야 한다면, 이해조의 대표작인 (자유종)을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 분을 기념하여 그 뜻을 역사에 같이 같이 남기는 일이 되며 자유로운 시민 정신을 표상하는 그 작품의 의미를 포천시 승격을 통해 새롭게 살려내어 교육 문화 도시로서의 포천의 정체성(正體性)을 정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3. 최근 국문학계에서도 신소설의 개척자로서 이해조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이해조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그분의 훌륭한 업적을 재평가하여 국문학사에서 그의 위치를 바로잡고 있다. 이러한 때에 포천은 시로 승격되었고, 포천 시민들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해조의 선구자적인 업적을

기리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을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시민 대중의 이름을 '자유종'이라고 명칭하면 범시민적 사업이 될 수 있다.

4. '이해조'는 많은 문화적 콘텐츠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담고 있다. 이해조는 우리 전통의 판소리 사설을 소설화하는 재창조를 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의 문학이 함유하고 있는 소설, 판소리적 요소, 연극적 요소 그리고 교육과 철학 사상 등을 통해 포천을 문화 도시로 발전시킬 문화 코드를 발굴하는 재창조를 할 수 있다. '자유종' 브랜드를 잘 살리면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많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 남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땅인 포천에서 '자유종'이 울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광복 60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이제 분단의 벽을 뚫고 새 시대의 태동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인들의 이동경비와 막걸리 등의 이미지에서, 이제 '자유종'이 울리면 과거의 골레를 벗어던지는 새로운 희망의 소리, 철책의 골레를 뛰어넘으려는 새로운 도약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최근 온사마 봄이 일고 춘천이 국제적인 명소로 되고 있는 때 '자유종'은 이보다 더 큰 문화 콘텐츠이다.

### 자유종이 울린다

포천은 예로부터 산자수려한 뿐만 아니라 많은 인물을 배출한 곳이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많은 위인과 학자들이 있다. 충절과 학문이 있는 선비의 고장이다. 면암 최익현 선생은 이해조의 스승인 윤양 김윤식 선생을 "애적을 불러들여 나라와 임금을 내맡긴 역적이므로 능지처참해야 한다"고 극언한 바 있다. 위정척사(衛正斥邪)와 개화(開化), 이 둘 중 어느 하나만 옳고 어느 하나는 그르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각자가 애국의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보수(保守)와 혁신(革新)으로 평가를 이유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이제 포천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 그 미래는 자유 정신으로 각성된 시민들이 만들어 간다. 자유로운 시민 정신은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화하고 협력 하지만 자기의 개성을 잃지 않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극단을 배격하고 상충을 통합하려는 중용(中庸)의 지혜가 있다면, 포천의 역사에서 이 양대 민맥과 사상은 새로운 창조 의 큰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자유종'이 울린다. 그것은 천년의 한을 울리는 해원(解冤)의 소리이며, 역사의 새 장을 알리는 개벽(開闢)의 소리이며, 상극을 아우르는 화해(和解)의 소리이며, 화이부동하는 조화(調和)의 울림이며, 문화 교육 도시 포천의 신새벽을 알리는 개명(開明)의 울음이며, 남북 분단의 고통으로부터 해방(解放)되는 소리이며,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의 합창(合唱) 소리이며,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조(創造)의 아우성이다. '자유종'이 울린다. 그것도 해방 60년을 맞아, 을사보호조약 100주년을 맞아, 1000여 년의 군(郡)을 벗어나 시(市)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 자유기고

##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는가?



이 중희  
시인·평등자문위원

지난 한 해 정치권은 정쟁으로만 일관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현 난국의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이라도 고찰해보면 역사는 언제나 집권자에게 더 가혹하게 책임을 물었음을 알 수 있다.

옛날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정(鄭)나라에 정령공이라는 임금이었다. 이 때 정나라에는 정승 공자귀생과 대부 공자승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

어느 날 정령공은 한 백성이 잡아서 바친 큰 자라로 국을 끓여 모든 대신들과 함께 먹고 즐기려고 음식을 담당한 재부에게 명령했다. 그 날 공자귀생과 공자승은 임금께 문안을 드리려고 궁에 들어오는 도중에 공자승의 둘째 손가락 식지가 저절로 꺾어져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를 본 공자승은 공자귀생에게 "이렇게 저절로 식지가 움직이는 날은 꼭 특별한 별미를 맛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었소"하고 자기 손가락의 영험함을 자랑했다. 과연 궁에 들어와 보니 오늘 삼강에서 자라국을 끓여 모든 대신들에게 나누신다는 부부가 있었다고 재부가 전했다.

이 소식에 공자귀생과 공자승은 정령공 앞에서도 기쁨을 참지 못하고 즐거워했고 이를 본 정령공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자귀생은 정령공에게 공자승의 식지 이야기를 했다.

정령공은 크게 웃으며 공자승에게 물었다. "과인이 모든 신하들에게 자라국을 대접하려는데 한 그릇이 부족하여 공자승은 그 맛을 못보겠구나. 이리하여 그의 식지가 저절로 움직인들 무슨 영험함이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공자승의 식지가 영험 없음을 대신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 순간 공자승은 벌떡 일어나 급한 걸음으로 정령공 앞에 놓인 자라국에 손을 넣어 고기 한 점을 꺼내 씹으면서 "신은 이미 범미인 자라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어째서 신의 신지가 영험하지 않단 말입니까? 하면서 밖으로 나가 버렸다. 정령공은 숫가락을 집어던지면서 "정나라에 저 놈의 목

을 벨 칼이 없을가"하며 대로하였다. 이 일로 정령공과 공자승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다.

어느 날 공자승은 공자귀생을 자기 집 실로 불러들였다. "임금은 나를 몹시 미워하오. 아마 나를 꼭 죽일 거요. 죽음을 기다리느니 내가 먼저 임금을 죽여야겠소." 공자귀생은 귀를 막으며 대답했다. "이에 그런 소리 말게. 신하가 어찌 임금을 죽일 수 있겠소." 그러자 공자승은 태연히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농담이니 그대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 마오."

이튿날 공자승은 궁에 들어가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자귀생이 역적 모의를 하는 것 같으며 조심하자고 외쳤다. 옆에서 이 말을 들은 공자귀생은 얼굴이 흠뻑으로 변하여 공자승을 조롱한 곳으로 데리고 가 "그대는 나와 무슨 원수가 졌다고 나를 모함하는가?" 그러자 공자승은 태연히 위협했다. "그대는 나에게 협력치 않을 사람이니 그대를 나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하겠소."

원래 마음이 약한 공자귀생은 공자승의 공갈 협박에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서 "그러면 나더러 어찌란 말이나?"하며 애걸했다. 그러자 공자승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나를 도와 정령공을 죽이고 공자귀생을 임금으로 추대해 진(鄭)나라와 친선해서 우리 정나라를 안전하게 하겠소?" 공자귀생이 말했다. "난 만사를 그대에게 맡기네."

이에 공자승은 자기 직속 장정들을 시켜 가을 제사를 지내려고 태묘에서 자고 있던 정령공을 무거운 흙가마니로 눌러서 죽이고는 필시 잡귀와 정령공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틀림없다고 소문을 퍼트렸다. 공자귀생은 이것이 다 공자승의 소행이란 걸 알고 있었으나 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자는 그의 저서 춘추에서 "가을 7월 을축날에 정나라 공자귀생이 그 임금 정령공을 죽였도다"라고 기록했다. 공자는 모든 책임을 당시 벼슬이 더 높았던 공자귀생에게 돌림으로서 집권자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후세에 경계시킨 것이다.

공자남께서는 왜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일 높은 벼슬에 있었던 정승이라는 자가 밑의 사람의 공갈에 걸려 나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국민들은 극심한 경기 침체로 모두들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런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야간의 기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하지만 앞에서의 예와 같이 역사는 항상 그 시대의 집권자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리기 마련이다. 물론 정부 여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민생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역사는 그 당시의 집권자에게 언제나 인색한 것이다. 이것이 위정자들과 정치권이 역사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질병없는 사회 건강보험의 꿈입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올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의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단에서는 여러분이 납부하여 주신 보험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질병치료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줄여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만성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와 MRI 등 고비용의 검사에도 급여 적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 확대와 수기인상요인** 등에 따른 필요 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의 어려운 현실 등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를 2.38% 인상하여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기로 가입자·의약계·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5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 모두가 꼭 부담하여야 할 국민복지비용임을 인식하시고 납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인상을 2.38% 적용** 인상액을 예시한다면 재산이나 소득, 차량, 세대원 등 보험료 부과요소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작년 **12월 50,000원을 부담하셨다면 올해부터는 51,190원 즉 1,19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귀 가정에 다시 한번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2월

